

“츰츰한 전주형 주거복지 안정망 조성”

시, 비정상적 가격 급등 아파트 정밀 조사·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기로 한 것은 주거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자 생존권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배경에 투기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실수요자 등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는 물론 주거지재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집 없는 실업으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다. 서민 주거권 지킨 전주시
최근 예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전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세력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한 예코시티, 만성지

구,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을 정밀 조사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1차적으로 최근 조사에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가 대비 상승률이 급등한 아파트, 외지인이 다량으로 거래한 중개업소, 전매 제한 대상 아파트 거래 등 222건을 확인하고, 현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시는 앞서 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임대사업자의 부도도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왔을 위기에 있던 서서학동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했다. 43㎡(13평)~52㎡(16평) 규모의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주택인 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강제경매에 넘어가 임주민 240여 세대가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지만 시가 지역정착권, 국토교통부, LH, 전북개발공사, 금융권 등과 협력해 해결했다.

시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한 데 이어 해마다 임대료를 당시 법정 최고치였던 5%까지 올리면서 임주민들이 매년 1,000만원씩을 더 부담해야 했던 대형 민간대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도

개입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전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전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전주형 주거복지 안정망 ‘츰츰하게’

동시에 시는 지난 2017년 1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관리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 등 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츰츰한 주거복지 안정망도 갖춰왔다.

팔복동 계층통합 주택, 사회주택 청춘101, 전주달팽이집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한 것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주시가 지방정부에서는 최초다. 기존 LH와 지방공사 등에서만 참여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참여한 것도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빈집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전주 구도심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통합돌봄을 결합한 주거복지 지역재생 모델을 바탕으로 누구나 편안한

게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재생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공개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켄트리파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사례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힘겨운 영세상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운동’이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되고, 자칫 거리로 내몰릴 우려가 커진 서민들을 위해 집세를 깎아주는 ‘착한 집세 운동’으로 이어진 모태가 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실업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더욱 츰츰한 전주형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020 국제슬로시티 전주, 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대상적인 이상운 씨의 '경기전의 가을'을 선정했다.

‘슬로시티 전주, 사진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상작 이상운 씨 '경기전의 가을' 등 30명 수상

전주시는 '2020 국제슬로시티 전주, 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대상적인 이상운 씨의 '경기전의 가을' 등 30명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제슬로시티 전주의 매력을 담아내는 다채로운 문화·역사 명소들을 표현한 사진을 전주 관광 홍보물에 활용코자 기획됐다.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이 공모전에는 총 169명, 725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시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홍보 활용성, 주제 적합성, 소재 상징성, 사진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작의 영예는 이상운 씨의 '경기전

의 가을'이 안았다. 이 작품은 한복을 입은 두 여성과 한옥마을 경기전의 가을 모습이 윤치 있게 표현됐다.

우수상으로는 김택수 씨의 '벽화마을의 겨울'과 김정국 씨의 '눈 오는 첫마중길' 등 2개 작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김석철, 최은아, 이경렬 씨가 수상했으며, 24명이 입선으로 뽑혔다.

시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선정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게재했다.

수상자들은 대상 30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60만원, 입선 각 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김윤상 기자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 지원 성과보고회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16일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0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지원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지역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전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등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큰 안정팀 (유)이젠365 대표 등 13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전라북도지사상, 전주시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비대면 방식의 행사여서 표창장은 추후 전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안정팀 대표는 방역기자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방역 시스템을 구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을 진행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시제품 개발자원을 통해 환풍기용 자동 방충망 등 우수 아이템을 도출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도 선정된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중소 혁신 기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및 기업제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지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지난 2005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지역 내 벤처·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김윤상 기자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 행안부장관상 수상

전주시는 16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에서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대표 이국형)'가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 포럼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하는 행사다.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는 올해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돌봄 사업을 12년간 추진해온 이 공동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593명(누적인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틈새 돌봄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자녀 9명을 대상으로 아간과 주말에 돌봄활동을 지원했다. /김윤상 기자

공동체는 향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 ▲코로나19에 발맞춘 비대면 수업 개설 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완전한 자립공동체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이국형 대표는 “공동육아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것은 역량강화를 위한 시의 지원이 큰 힘이 됐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영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주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대한 다년간의 노력의 결실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처럼 공동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 표창

김영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받아

전주시가 16일 김영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대상 표창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날 김 전주지청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은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대상

을 받는 위업을 달성했다. 시는 대상 수상으로 2억원의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경제 진화도시로도 선정돼 1년간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됐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단위 조직과 조례를 제정한 이후 사회적경제 기반을 키운 결과 사회적기업 107개, 마을기업 8개, 자활기업 14개, 협동조합 390개 등 519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